

특 집 제41회 도서관주간을 보내며 ④

삶의 향기와 꿈이 있는 e-도서관을 지향하며

조명희*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은 1971년 5월 5일 경상북도 학생도서관으로 개관된 이래 1987년 6월 27일 현재의 청사로 이전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 백화점과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동선과 같은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 중심의 편리한 교통의 장점으로 인해 도서관은 늘 이용자들로 붐비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중구 평생학습관 지정(2003-2006),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도서관분야 장려상을 2차례(2000년, 2002년) 수상하는 등 중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과 독서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지역의 문화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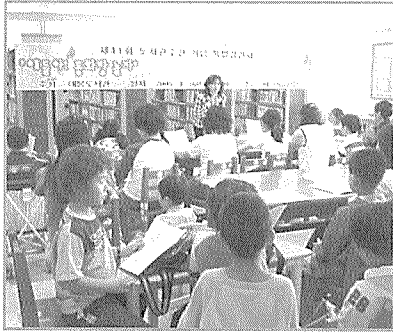
〈열람봉사실 우먼파워 김명희 조명희 김경희〉

도서관주간은 1919년 미국의 보이스카웃도서관장 프랭크린 K. 맏슈씨가 소년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창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현재는 '독서주간'과 '도서관주간'이 엄격히 구분되지만 일제시대에는 이 두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다가 1925년부터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주관, 주최가 되어 매년 개최하였다고 한다. [申學均, "讀書週間行事의 回顧와 展望",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No.110(1966.10), p.402]

해마다 어김없이 맞이하는 도서관주간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지역주민과 이용자를 위한 참신하고 유익한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한다. 제41회 도서관주간에 우리도서관에서 행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대구광역시립대봉도서관 열람봉사실장, myunghee@tgedu.net

애들아, 동화랑 놀자, -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동화 읽어 줄까?



우리 도서관은 매주 화, 금요일 11시에는 어린이 열람실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독서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도서관주간에는 새롭게 단장된 어린이열람실에서 어린이와 어머니를 함께 초대하여 “애들아 동화랑 놀자,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동화 읽어 줄까?”의 제목으로 4월 16일(토) 오후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유치원 어린이들은

책을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이야기 시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머니를 위해 좀 더 체계적으로 동화책 읽어주는 방법을 현장에서 연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색동어머니회 강사의 다양한 음성과 몸동작, 사전에 준비한 인형 소품들을 활용한 동화구연을 보고 참여한 어린이와 어머니가 직접 따라하거나 독창적으로 현장에서 발표를 동시에 함으로써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거나 박수를 받고 즐거워했다. 참여한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대로의 모습으로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며, 도서관은 독서의 즐거움을 위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지만 흥미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학습은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학습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부터 시작된다. 공공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도서관은 아이들의 삶과 학습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학습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책과 교육, 기타 도구와 장소를 제공한다.

웰빙 평생학습 체험 “전통 접빈다례 시연 및 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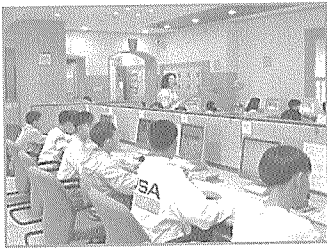


‘도서관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과 같이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평생교육이란 큰 범위

안에서 도서관주간을 맞이하여 대봉 중구 평생학습관 주체로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불거리 제공과 동시에 이용자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 도서관 앞마당에서 전통 접빈 다례 시연을 준비했다. 초대한 팽주와 다동 그리고 참석한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즉석에서 손님으로 모시고 엄숙한 시연이 진행되었다. 접빈다례와 생활다도의 차이를 눈으로 느끼면서 웰빙 평생

학습으로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즐겼다. 끝남과 동시에 우리차와 중국차를 시음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공도서관의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이 도서관의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서관으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도서관에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제공을 위해 '산수화', '미술치료', '수필강좌', '중국어', '한지와 그림세상' 등 21종의 각종 문화강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종합문화학교 도서관 체험교실 “도서관 전자자료 체험”



전자매체 시대에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인터넷 접속은 많은 도서관이 지역사회 정보 요구에 답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로 전자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도서관 어린이종합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인 “도서관 체험교실”은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소장된 모든 전자자료에 대한 교육과 직접 시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어릴때부터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 이용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독서나 작문기술과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창조적인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쇄자료에서 느낄 수 없는 동영상, 인터랙티브한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접하게 된다. 고학년 아동은 전자백과사전이나 학교 과제물 작성을 위한 전자참고자료의 활용을 유도하고, 저학년에는 전자책, 교육용 오락 CD-ROM 등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구의 활용 방법을 지도한다. 도서관 전자자료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의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이루어 진다.

어린이 인형극 “빨간모자, 동화구연”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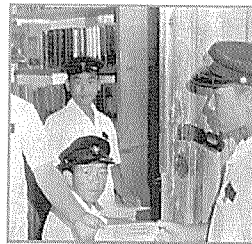


사진에 “대봉인형극단”이란 글씨가 크게 보인다. 대봉인형극단은 우리 도서관 문화강좌인 “인형과 함께 동화의 나라로”의 수강생 모두가 구성원이며, 수강생이 직접 인형을 만들고 녹음을 하여 작품을 만드는 순수한 자원봉사인형극단이다. 우리 도서관 특색사업인 ‘어린이종합문화학교’ 운영에서 유치원생에게 가장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레크리에이션, 무언극, 동화구연, 창작인형극 공연 등으로 구성되며 공연시간은 50분 정도이다. 단체관람은 인근 유치원 특히 저소득층, 장애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며, 모자열람실의 어린이도 어머니와 함께 이 시간이면 시청각실로 모인다. 지금은 입소문이 퍼져 관람신청 공문이 나가기 전에 우선 전화로 접수를 받을 만큼 공공도서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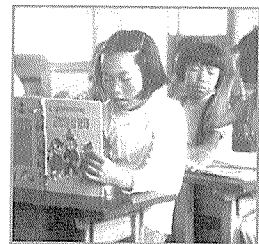
서 무료 인형극 공연이 하나의 테마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외부 인형극단을 섭외하여 공연하는 것에 비해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인형제작, 무대연습, 예산지원 등)이 들어가지만 어린이들의 문화공간으로서 그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5월 가정을 달의 맞이하여 새 작품을 준비하는 대봉인형극단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기대하며...

'70년대 학교도서관 다큐 사진전

서두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도서관의 전신인 경북학생도서관 시절에는 대구·경북지역의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최근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지원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지원한 학교도서관의 전경을 흑백 사진으로 찍어 지금까지 그 당시의 모습이 보존자료실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도서관주관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보관되어온 당시의 학교도서관 모습을 다시 확대하여 "70년대 학교도서관 다큐 사진전"을 도서관 앞마당에 전시했다. 흑백사진으로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그 당시의 도서관 안내포시, 도서대출, 독서활동, 학생들의 교복, 모자 등 흑백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 도서관의 자료 보존의 역할과 학교도서관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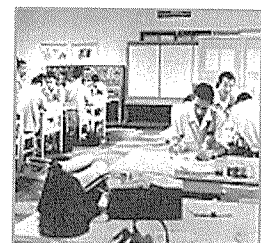
〈경북의성중고등학교〉



〈경북정선부곡초등학교〉



〈사대부속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이 밖에 "모범이용자·독서회원·자원봉사자 표창"과 도서관주관을 알리는 "거리홍보 캠페인", 도서관소식지 "대봉도서관문화" 발간, "도서관이 있는 문화영화 상영", "권장도서 목록 배부" 등을 통해 알찬 도서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삶의 향기와 꿈이 있는 e-도서관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모범이용자, 자원봉사자 표창〉



〈거리홍보 캠페인〉